

# 李玉『眉山秀』의 構成과 意義\*

윤현숙\*\*

## <目 次>

1. 서론
2. 取材와 構成
  - 1) 『蘇小妹三難新郎』
  - 2) 『義倡傳』
  - 3) 『王安石三難蘇學士』
  - 4) 『拗相公飲恨半山堂』
  - 5) 『五戒禪師私紅蓮記』
3. 創作意義
4. 결론

## 1. 서론

『眉山秀』는 明末淸初의 희곡 작가李玉(1600?~1676?)<sup>1)</sup>의 작품이다. 이는 宋代의 大文豪 蘇軾(1037~1101)의 여동생 蘇小妹와 秦觀(1049~1100)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sup>2)</sup>, 蘇軾 부자와 王安石(1021~1086) 간에 新法<sup>3)</sup>을 둘러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字는 玄玉(元玉), 호는 蘇門嘯侶·一笠庵主人. 현재 18편의 희곡이 전해지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一捧雪』·『人獸關』·『永團圓』·『占花魁』·『淸忠譜』 등을 꼽을 수 있다.

2) 학계에서는 이미 蘇洵의 「自尤詩序」, 蘇軾의 「乳母任氏墓誌銘」 등의 기록에 근거해 蘇軾에게는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모두 어릴 때 사망했고, 여동생은 없음을 밝혀냈다. 秦觀은 「徐君玉主簿行狀」에서 아내의 이름을 徐文美라고 밝히고 있어, 蘇小妹가 秦觀의 아내라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3) 王安石이 熙寧2년(1069)에 재상이 되어 추진한 것으로 變法이라고도 한다. 財源을 개발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사 훈련을 시행해 안보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淸苗

싸고 벌어진 정치 투쟁을 반영하였다. 『眉山秀』라는 제목은 蘇軾의 고향이 四川省 眉山이고, 王安石이 蘇軾 삼남매의 재주를 칭찬하여 “眉山的 빼어난 기운, 모두 蘇氏 일가에 모아졌네.”<sup>4)</sup>라고 한 말에서 취한 것이다.

李玉의 『眉山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大曆(766~779) 시기 어떤 여인이 白居易(772~846)의 「琵琶行」을 잘 연주하여, 그 부르는 값이 십만 냥에 이르렀다.李玉의 『眉山秀』가 희곡을 짓는 자들에게 전해지면, 그 가치는 또 한 차례 올라갈 것이다.<sup>5)</sup>

李玉이 지은 33편의 희곡 가운데, 『一捧雪』·『人獸關』·『永團圓』·『占花魁』가 가장 유명한데, 『眉山秀』는 이보다 훨씬 뛰어나다.<sup>6)</sup>

『眉山秀』(『眉山秀』는 蘇小妹의 일을 적고, 이에 의로운 長沙 기녀의 일을 더하였는데 문사와 내용이 대단히 뛰어나다)의 고아함과 정교함은, 명대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sup>7)</sup>

그러나 지금 사람이 볼 때, 이 작품은 문인의 사랑과 풍류에 관한 미담을 모아 엮은 것이기에, 내용이 진부할 뿐 아니라 구성도 빈잡하고, 사상적 가치도 결코 높지 않다.<sup>8)</sup>

『眉山秀』·『太平錢』같은 작품은 모두 군더더기가 지나치게 많아, 내용이 산만하고 구성도 엉성하다.<sup>9)</sup>

法·免役法·均輸法·市易法·保甲法·保6+馬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 교육과 관련하여 과거제도의 개혁과 太學三舍法 등의 주장도 내놓았다.

4) “眉山秀氣, 盡鐘蘇氏矣”,李玉『眉山秀·譽兒』,上海古籍出版社, 2004, 910쪽.

5) “昔大曆中女子, 能按香山「琵琶行」, 至索價十萬, 元玉此劇, 傳諸顧曲者, 又增一番聲價矣.” 錢謙益「眉山秀題詞」, 『歷代曲話彙編·清代編』, 黃山書社, 2008, .67쪽.

6) “玄玉所作有三十三種, 『一』·『人』·『永』·『占』最著盛名, 而『眉山秀』尤出各種之上”, 吳梅『中國戲曲概論』, 上海古籍出版社, 2000, 19쪽.

7) “且『眉山秀』劇(『眉山秀』譜蘇小妹事, 而以長沙義伎輔之, 詞旨超妙), 雅麗工鍊, 尤非明季諸子可及”, 위의 책 188쪽.

8) “但在今人看來, 這部作品以文人艷事·風流佳話攢簇成篇, 不止內容陳舊, 結構也很龐雜, 思想藝術價值并不高.”, 顏長珂·周傳家『李玉評傳』, 中國戲劇出版社, 1985, 113쪽.

9) “如『眉山秀』·『太平錢』等, 都顯得過份堆砌, 以致內容散亂, 結構鬆散.”, 胡梓穎「李玉改編劇研究-兼論文人傳奇與市民文學之融和」, 香港科技大學·人文學部 碩士論文, 2006, 7쪽.

동일한 작품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에 取材와 構成, 創作意義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眉山秀』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 2. 取材와 構成

『眉山秀』는 극 전체의 내용을 개괄한 「傳概」와 상·하권 각 14齣, 모두 28齣으로 구성되어 있다. 28齣의 목록은 「完詩」·「譽兒」·「品婿」·「參禪」·「乞聯」·「婚試」·「詞話」·「辨奸」·「歸山」·「裁賦」·「互難」·「僞鬧」·「劾謫」·「前遊」·「契合」·「促行」·「後遊」·「改妝」·「設計」·「負圖」·「庵遇」·「求詩」·「奸遇」·「內召」·「修史」·「點悟」·「逐姬」·「團圓」이다. 『眉山秀』는 전해지는 다섯 편의 話本과 志怪 소설 중의 일부 내용 및 세간에 전해지는 이야기, 역사적 사실 등을 채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또 기존의 이야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蘇小妹三難新郎」

「蘇小妹三難新郎」은 明末清初의 통속문학가 馮夢龍<sup>10)</sup>(1574~1646)의 話本 小說集 『醒世恒言』 권11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蘇洵(1009~1066)은 딸 蘇小妹가 자신이 짓다만 시를 완성한 것을 보고 그 재능을 아껴 더욱 사랑한다. 어느 날 王安石이 자신의 아들 자랑을 하자, 蘇洵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집 아들이 두 번을 읽습니까? ……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딸도 한 번만 읽으면 압니다.”<sup>11)</sup>라고 자랑한다. 王安石은 蘇洵에게 아들 王雱(1044~1076)의 작

10) 字는 猶龍·子猶. 이외에 綠天館主人·可一居士·無碍居士·顧曲散人·龍子猶·吳下詞奴·墨憨子·墨憨齋主人·茂苑野史·詹詹外史·香月居主人 등의 별호가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墨憨齋定本傳奇』·『太霞新奏』 등이 있다.

11) “誰家兒子讀兩遍? …… 不惟小兒只一遍, 就是小女也只一遍.”, 『蘇小妹三難新郎』, 『醒世恒言』.

품을 보여주며 평가해달라고 한다. 蘇洵은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蘇小妹에게 평가하도록 한다. 蘇小妹는 이를 “충명한 사람의 글이지만, 그 훌륭한 기세가 밖으로 남김없이 드러나고, 화려하지만 내면이 충실하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는 그릇은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한다.<sup>12)</sup> 蘇洵은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 蘇小妹의 평어 부분을 찢고 새 종이에 칭찬의 글을 적어 붙인다. 마침 王安石이 사람을 보내 혼인 의사를 밝히자, 蘇小妹의 용모가 예쁘지 않아 王雱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은근히 거절한다. 王安石은 蘇小妹가 영리하지만 용모는 보통이라는<sup>13)</sup> 말을 듣고 혼인에 관한 말을 다시 꺼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蘇小妹에게 많은 청혼이 들어온다. 蘇洵은 모든 청혼자에게 시를 지어 보내게 하고, 蘇小妹에게 이를 평가하도록 한다. 蘇小妹는 그 가운데 秦觀의 시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여 “오늘은 충명한 秀才이지만, 후일 출중한 문인이 되리라. 蘇軾·蘇轍(1039~1112)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애석하구나. 그렇지 않다면 한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평한다.<sup>14)</sup> 이에 蘇洵은 秦觀의 집에 사람을 보내 혼인의 의사를 밝힌다. 秦觀은 평소 蘇小妹의 재주를 흠모해왔기에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전해지는 말처럼 용모가 별로인지 알아보기 위해 스님의 모습을 하고 절에 간다. 향을 사르기 위해 절에 온 蘇小妹와 대화를 나눈 秦觀은 그녀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sup>15)</sup> 품위 있는 용모를 보고 흡족해한다. 秦觀은 빨리 혼사를 치르기를 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229~230쪽.

12) “此必聰明才子所做。但秀氣泄盡，華而不實，恐非久長之器。” 위 의 책 230쪽.

13) 이는 蘇軾과 蘇小妹가 서로 용모를 놀리며 주고받은 다음의 시에 근거한다. “東坡는 입 주위에 수염이 있어”, 小妹가 “입 가장자리를 몇 번이나 보았지만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털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네.”라고 놀렸다. 小妹는 이마가 튀어나와, 東坡가 이를 “마루를 나온 지 서너 발자국도 안됐는데, 이마가 먼저 방 앞에 닿았네.”라고 놀렸다. 이에 小妹는 또 東坡의 아래턱이 긴 것을 가지고 “작년에 흘린 그리움의 눈물, 지금까지 뺨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네.”라고 놀렸다. 東坡는 小妹의 두 눈이 약간 들어간 것을 가지고 다시 “몇 번이나 얼굴을 닦아도 깊어 닦지 않고, 물 찰랑대는 두 우물만 남아있네.”라고 놀렸다 (東坡是一嘴胡子, 小妹嘲云, 口角幾回無覓處, 忽聞毛里有聲傳, 小妹額顛凸起, 東坡答嘲云, 未出庭前三五步, 額頭先到畫堂前. 小妹又嘲東坡下頰之長云, 去年一點相思淚, 至今流不到腮邊. 東坡因小妹雙眼微捩, 復答云, 幾回拭臉深難到, 留却汪汪兩道泉), 위 의 책 231쪽.

14) “今日聰明秀才, 他年風流學士. 可惜二蘇同時, 不然橫行一世.” 위 의 책 232쪽.

15) 秦觀이 ‘아가씨, 다복하시고 장수하실 것이니, 자비를 베푸시길’이라고 하자, 小妹가 ‘스님께서는 어떤 덕행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감히 보시를 청하시는지요.’라고 응대했다. 이에 秦觀이 ‘아가씨의 몸 藥樹처럼, 모든 병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자, 小妹가

하지만, 蘇小妹가 秦觀이 制科에 급제한 이후 혼사를 치르기를 위해 날짜가 미루어진다. 혼인 날 저녁, 秦觀이 신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녀가 나와 蘇小妹가 낸 세 문제를 풀어야 첫날밤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秦觀은 자신만만해하지만 세 번째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마침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나온 蘇軾의 도움으로 마지막 문제를 푼다.<sup>16)</sup> 이후 蘇小妹는 秦觀보다 먼저 죽고, 秦觀은 아내를 다시 맞이하지 않았다.

『蘇小妹三難新郎』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蘇軾의 벗 佛印<sup>17)</sup>이 보낸 시를 보고 蘇軾과 秦觀 모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蘇小妹가 단번에 그것을 파악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분량이 적지 않지만 『眉山秀』에서는 채용하지 않았고, 대신 『蘇小妹三難新郎』의 “宣仁 태후 역시 蘇小妹의 재주를 듣고 번번이 내관을 보내 비단과 음식 등을 하사하며, 문장을 지어달라고 했다.”<sup>18)</sup>라는 말을 근거로 過場의 성격을 띤 「裁賦」·「內召」·「修史」, 秦觀을 대

걸어가며 ‘스님의 유창한 말씀씨로는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秦觀이 곧장 가마 앞으로 다가가 다시 ‘아가씨,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왜 산을 떠나시나요?’라고 묻자, 小妹는 대충 ‘스님께서 이렇게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으니, 어찌 보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少游打個問訊云, 小姐有福有壽, 願發慈悲. 小妹應聲答云, 道人何德何能, 敢求布施. 少游又問訊云, 願小姐身如藥樹, 百病不生. 小妹一頭走, 一頭答應, 隨道人口吐蓮花, 半文無舍. 少游直跟到轎前, 又問訊云, 小娘子一天歡喜, 如何撒手賣山? 小妹隨口又答云, 風道人恁地貪痴, 那得隨身金穴). 위의 책 233쪽.

16) 첫 번째 문제는 絶句 “쇠불이는 불 속에 던져져 단련되고, 개미는 하얀 담을 오른다. 陰陽에는 두 번째 뜻이란 없고, 天地의 중앙에는 내가 있네(銅鐵投洪冶, 螻蟻上粉牆. 陰陽無二義, 天地我中央).”를 보고, 이 문제의 의미가 들어간 시를 짓는 것이어서, 秦觀은 자신이 스님으로 분장하여 布施를 청했던 일과 연관이 있어 化·緣·道·人 네 글자가 들어가야 함을 알고 “조물주는 어이하어 봄을 재촉하는가? 인연 닿아 정원에 이르면 절로 꽃 피울 것을. 봄바람은 원래 주인이 있다고 하기에, 사람들은 감히 花臺에 오르지 못하네(化工何意把春催? 緣到名園花自開. 道是東風原有主, 人人不敢上花臺).”라고 대답한다. 두 번째 문제는 四句의 시 “조상을 능가하는 공적이 있고, 벽을 뚫어 새어나오는 빛으로 책을 읽었네. 길에서 바느질 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노인은 온종일 문에 기대어 있네 (強翁勝祖有施爲, 鑿壁偷光夜讀書. 縫綫路中常憶母, 老翁終日倚門間).” 안에 들어 있는 네 명의 古人이 누구인지 맞히는 것인데, 秦觀은 孫權·孔明·子思·太公望을 모두 맞힌다. 세 번째 문제는 “문 닫아 창 앞의 달 멀리 밀어내고 (閉門推出窓前月)”에 대응하는 시구를 짓는 것인데, 여기서 막힌 秦觀은 蘇軾이 돌을 던져 물이 담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돌을 던져 물속의 하늘을 연다(投石冲開水底天)”라고 답한다.

17) 佛印(1032~1098)은 宋代의 승려로 法號는 了元, 자는 覺老이다.

18) “宣仁太后亦聞蘇小妹之才, 每每遣內官賜以絹帛或飲饌之類, 索他題詠.” 위의 책 240쪽.

신하여 사람들에게 詩文을 써주는 「求詩」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蘇小妹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sup>19)</sup>

『眉山秀』에서 蘇小妹·秦觀과 관련된 부분은 「裁賦」·「內召」·「修史」 이외에 「完詩」·「譽兒」·「品婿」·「參禪」·「乞聯」·「婚試」 등이 있다. 제목만 봐도 蘇小妹·秦觀과 관련된 「蘇小妹三難新郎」의 내용이 순서대로 안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과 구성 면에서의 차이를 보면, 「完詩」에서는 黃庭堅(1045~1105)이 등장하여 蘇洵이 짓다만 시를 완성한 蘇小妹의 재주를 칭찬하며 사윗감으로 秦觀을 추천한다. 「譽兒」에서는 王雱이 등장하여 蘇洵과 인사를 나누고, 王安石의 부탁으로 蘇洵이 王雱의 작품을 가져온다. 「品婿」에서는 黃庭堅의 추천으로 秦觀의 시를 본 蘇洵이 蘇軾을 통해 蘇小妹에게 王雱과 秦觀의 시를 직접 평가하게 한 뒤, 蘇軾이 王雱에 대한 평어 부분을 좋게 고쳐 王安石에게 보낸다. 「參禪」에서는 秦觀이 절에서 蘇軾과 黃庭堅을 만나 蘇洵과 蘇小妹가 자신의 시를 칭찬했다는 말을 듣지만, 그래도 얼굴을 한 번 보려고 한다. 이에 蘇軾이 그녀가 절에 갈 것임을 알려준다. 「乞聯」에서는 절에서 蘇小妹를 만난 秦觀은 黃庭堅에게 그녀가 자신의 아내로 적합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婚試」에서는 蘇小妹가 첫날 밤 秦觀을 시험한다. 「蘇小妹三難新郎」과 달리 黃庭堅을 등장시켜 蘇軾과 함께 두 사람의 혼인에 중매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로써 일부 소소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 큰 틀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義倡傳」

「義倡傳」은 宋代 洪邁(1123~1202)가 지은 志怪小說集 『夷堅志·補卷第二』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秦觀과 義妓에 관한 것이다. 秦觀은 王安石의 新法을 반대하여 郴州로 폄적되는데, 도중에 長沙를 지나게 된다. 그는 대화상대로 삼

19) 「裁賦」에서는 태후가 사람을 보내 물건을 하사하며 蘇小妹에게 문장을 지어줄 것을 청하고, 「內召」에서는 秦觀의 임지를 찾아온 蘇小妹가 숙히 입궐하여 『女史』를 편찬하라는 태후의 명령을 받아 상경하며, 「修史」에서는 입궐한 蘇小妹에게 태후가 그녀의 文才를 칭찬하며 『女史』를 지으라고 한다.

을만한 기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간다. 시골의 기생이기에 큰 기대를 안했는데, 만나보니 장안에서도 찾기 어려운 미모이고 거처 또한 아주 운치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상 위에 秦觀의 책만 펼쳐져있고, 평소 그의 詞만 연습한다는 것이다. 의아하여 연유를 물으니 기녀는 秦觀을 만나 첩이라도 될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이 바로 秦觀임을 밝힌다. 기녀는 며칠을 함께 보내고 임지로 떠나는 秦觀에게 평생 수절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훗날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만 들러달라는 부탁을 한다. 몇 년 후, 기녀는 자신과 이별하기 위해 찾아온 秦觀의 꿈을 꾸고, 그가 죽었음을 직감한다. 이에 그녀는 소복 차림으로 秦觀의 장사가 치러지는 곳을 찾아가 관을 쓰다듬고 세 번 통곡한 다음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

『義倡傳』에서는 義妓의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李玉은 그녀의 이름을 文娟이라 붙인다. 『眉山秀』에서 秦觀과 文娟에 관한 부분은 「詞話」·「裁賦」·「僞鬪」·「契合」·「促行」·「改妝」·「庵遇」·「內召」·「逐姬」·「團圓」 등이다. 「詞話」는 文娟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으로, 이웃 암자에 사는 여승에게 秦觀을 만난 적은 없지만 사모하기에 수절하겠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 때 文娟을 찾는 손님이 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등장한 건달 劉思春과 郭敬竹은 여승으로부터 文娟이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秦觀 때문이며, 그를 한 번 만나보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 여승이 들고 있던 秦觀의 시를 적어놓은 책을 빌려 가짜를 내세워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한다. 「裁賦」에서는 秦觀이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적은 文娟의 편지가 도착하자 蘇小妹에게 대신 답장을 쓸 것을 부탁하고, 蘇小妹의 제안에 따라 황후에게 하사 받은 물건과 함께 보낸다. 「僞鬪」에서는 劉思春과 郭敬竹이 包仰崇에게 가짜 秦觀 노릇을 시킨다. 文娟은 자신의 물음에 계속 동문서답하는 包仰崇을 보고 의아해하고, 마침 그의 아내가 등장해 한바탕 헤프닝이 벌어진다. 이어 文娟이 사모하는 마음을 적어 秦觀의 집으로 보낸 심부름꾼이 회신을 가지고 돌아온다. 「契合」에서는 長沙에 도착한 秦觀이 우연히 자신의 시집을 팔려는 劉思春을 만나 文娟의 집으로 간다. 文娟은 가짜 秦觀 사건으로 인해 그가 진짜 秦觀이라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文娟은 이전에 보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들여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秦觀의 글을 보고나서야 진짜임을 알고 나와 반가이 맞는다. 「促行」에서는 秦觀이 文娟과 이별하고 임지로 떠난다. 「改妝」에서는 蘇小妹가 남자 차림을 하고 남편의 임지로 향하는데, 이는 蘇小妹와 文娟이 암자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 「庵遇」를 위해 설정된 것이다. 「庵遇」에서는 蘇小妹가 자신을 秦觀이라 소개하자 文娟은 당황한다. 蘇小妹는 文娟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면서도 자신이 진짜 秦觀이라고 우기며, 자신이 쓴 글과 지난번 보낸 편지의 필적을 대조해보라고 한다. 文娟은 필적이 같음을 보고 속았다고 여긴다. 「內召」에서는 郴州에 도착한 蘇小妹가 秦觀에게 文娟의 일을 언급하며 “당신은 이처럼 믿지만, 그녀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당신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急三鎗】 예로부터 바람 따라 흔들리는 버드나무에는 걸리는 게 많아. 굳은 약속 허사가 될 수도 있지요.”<sup>20)</sup>라고 복선을 간다. 「逐姬」에서는 秦觀이 껍적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文娟을 찾아가지만 냉대만 당한다. 秦觀은 蘇小妹의 말을 떠올리고 탄식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이어 秦觀의 집에서 文娟을 데려가기 위해 보낸 사람이 도착한다. 「團圓」에서는 秦觀의 집에 도착한 文娟이 秦觀을 보고 깜짝 놀라며 여전히 그를 가짜라고 여겨 언쟁을 한다. 마침 秦觀을 찾아온 蘇軾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蘇小妹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아차리고, 蘇小妹에게 사실을 밝히게 한다.

이상을 내용을 통해 볼 때 『眉山秀』와 「義倡傳」 두 작품은 많은 차이가 있다. 文娟의 결말을 완전히 바꾼 것은 중국 고전희곡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大團圓의 結局을 위해서이다. 李玉은 이를 위해 역사적 사실도 바꾸었으니, 껍적되어 郴州·橫州·雷州 등을 전전하던 秦觀은 徽宗(1082~1135)이 즉위하고 宣德郎에 복직되었으나, 돌아오던 도중 藤州에서 생을 마감한다.<sup>21)</sup> 『眉山秀』 중의 秦觀과 文娟에 관한 부분은 이후 京劇 『蘇小妹』·『賺文娟』 등에 그대로 채용되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 “你雖是信等痴心，只恐今番要他同去，又不認得你了。【急三鎗】自古道，楊花性，多牽惹。只怕金蘭約，等浮萍。”，李玉 『眉山秀·內召』，『李玉戲曲集』，上海古籍出版社，2004，994쪽.

21) “(秦觀)……削秩徙郴州，繼編官橫州，又徙雷州。徽宗立，復宣德郎，放還。至藤州，……笑視之而卒”，『秦觀傳』，『宋史』，中華書局，1985，13112쪽.



## 3) 「王安石三難蘇學士」

『警世通言』 권3에 수록된 「王安石三難蘇學士」는 王安石으로 인해 蘇軾이 여러 차례 곤경을 당하는 내용이다. 王安石은 蘇軾의 재능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蘇軾은 자신의 총명함만 믿고 그를 비웃어 미움을 산다. 예를 들어 王安石이 『字說』<sup>22)</sup>에서 坡字를 “土와 皮로 이루어지니, 坡는 土의 껍질이다.”<sup>23)</sup>라고 해석한 것을 보고, 蘇軾은 “鳩字가 九와 鳥로 이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sup>24)</sup>라고 한다. 王安石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묻자 蘇軾은 “『毛詩』에서 ‘뽕나무에서 갈매기 울어대니, 그 자식 일곱이로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하면 아홉입니다.”<sup>25)</sup>라고 대답한다. 이후 蘇軾은 湖州刺史로 좌천되는데, 그 이유가 이 일로 王安石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그를 찾아간다. 서재로 안내된 蘇軾은 王安石이 쓴 시의 “어젯밤 정원에 붙어온 가을바람에, 국화 꽃 떨어져 마치 바닥에 황금을 깔아놓은 듯하네.”<sup>26)</sup>라는 구절을 보고 “국화는 봄꽃처럼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 시인께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읊으시길”<sup>27)</sup>이라고 적는다. 王安石은 화가 나 蘇軾을 黃州 團練副使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린다. 蘇軾은 이번에도 그의 노여움을 사서 그런 것임을 알지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王安石을 찾는다. 王安石은 자신의 병에 좋은 물이 필요하니, 후일 고향에 가면 瞿塘 中峽의 물을 떠다 줄 것을 부탁한다. 임지에 도착한 蘇軾은 어느 가을 날, 국화꽃이 바람에 떨어져 한 송이도

22) 문자학 분야의 책.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아,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宋史·王安石傳』에는 “『字說』은 건강부회한 해석이 많고 불교와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 한 때 학자들은 이를 학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관이 이로써 인재를 선발하여,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 수가 없었고, 이전의 儒家들이 내놓은 학설은 아예 취하지 않았다(『字說』, 多穿凿附会, 其流入于佛、老, 一时学者无敢不传习, 主司纯用以取士, 士莫得自名一说, 先儒传注一切废而不用)”라는 말이 있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후 王安石의 新法이 실패한 후 禁書가 되면서 失傳되었다.

23) “從土從皮, 謂坡乃土之皮.”, 『王安石三難蘇學士』, 『警世通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26쪽.

24) “鳩字九鳥, 可知有故”, 위의 책 26쪽.

25) “『毛詩』云‘鳴鳩在桑, 其子七兮’, 連娘帶爺, 共是九個.”, 위의 책 26쪽.

26) “西風昨夜過園林, 吹落黃花滿地金.”, 위의 책 28쪽.

27) “秋花不比春花落, 說與詩人仔細吟.”, 위의 책 28쪽.

남아있지 않음을 보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에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간 길에 王安石의 당부대로 물을 길어다 줄 생각을 한다. 그러나 蘇軾은 깜박 잠이 들어 中峽을 지나치고 말아 下峽의 물을 뜨게 된다. 王安石은 그 물로 차를 끓이더니 蘇軾에게 정말 中峽의 물인지 확인한다. 蘇軾은 中峽의 물이라고 했지만, 王安石이 차 빛깔이 한참 만에 우러나오는 이치를 들어 下峽의 물임을 설명함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8)</sup> 王安石은 “모두 子瞻이 지나치게 충명하여 소홀하였을 뿐.”<sup>29)</sup>이라는 뼈있는 말과 함께 그의 학문을 시험한다. 蘇軾은 王安石이 낸 세 문제를 하나도 맞히지 못한다. 하지만 王安石은 그의 재능을 아껴 다음 날 翰林學士의 직책을 회복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王安石三難蘇學士』 중의 蘇軾은 王安石에 의해 계속 ‘輕薄’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王安石은 그를 두 차례나 좌천시키지만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결국은 조정으로 불러들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王安石은 蘇軾과 달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보다 훨씬 더 인간미 있게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본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後人是 이 작품을 ‘東坡처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도 세 차례나 荊公 王安石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사람이야 어찌했으리.’라고 평했다.”<sup>30)</sup>라는 말에 나타나 있다. 즉 당시 “天子를 알현하기 전, 먼저 相公을 뵈네.”<sup>31)</sup>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던 王安石이 그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에 대해 얼마나 가혹하게 했을지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眉山秀』는 「歸山」·「互難」에서 「王安石三難蘇學士」의 일부를 채용하였다.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蘇軾의 형상화에 있다. ‘輕薄’한 인재로 표현된 부분은 당연히 채용하지 않았고, 내용 또한 약간 변화시켜 蘇軾의 형상이 다른 부분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歸山」에서는 蘇洵이 王安石을 비방하는 내용의 「辯奸論」을

28) 『太平廣記』에는 唐의 陸羽(733~804)와 李德裕(787~850)가 물맛을 잘 변별했다는 기록이 있어, 王安石이 蘇軾에게 물을 떠오라는 부탁을 한 것은 실체가 아닌 가공된 이야기일 것이다.

29) “皆因子瞻過於聰明, 以致疏略如此.”, 위의 책 35쪽.

30) “後人評這篇話道, 以東坡天才, 尚然三被荊公所屈. 何況才不如東坡者.”, 위의 책 37쪽.

31) “未去朝天子, 先來謁相公.”, 위의 책 26쪽.

지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王安石이 부모님을 배웅하기 위해 가는 蘇軾에게 瞿塘 中峽의 물을 떠다 달라는 부탁의 전갈을 보낸다. 「王安石三難蘇學士」 중의 蘇軾은 자신이 자만하여 王安石을 화나게 했음을 깨닫고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물을 길어다 줄 생각을 하지만, 『眉山秀』에서는 王安石이 자발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互難」에는 下峽의 물을 들고 王安石을 방문한 蘇軾과 관련된 「王安石三難蘇學士」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王安石三難蘇學士」에서 蘇軾은 王安石의 질문에 하나도 응대하지 못하나, 『眉山秀』에서는 훌륭히 응대하여 王安石이 그 재주에 감탄해 마지않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 4) 「拗相公飲恨半山堂」

『警世通言』 권4에 수록된 「拗相公飲恨半山堂」은 新法이 실패한 후 재상에서 물러난 王安石이 江寧(지금 南京에 위치)으로 가는 도중에 겪은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王安石은 당시 사람들이 拗相公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집스럽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로 인해 자기의 新法을 반대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한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은 아들 王雱이 꿈에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며 그것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sup>32)</sup> 사직하고 江寧으로 떠난다. 王安石은 도중에 官府를 수고롭게 하지 않기 위해 시종 江居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도록 한다. 처음 가마와 말을 빌리러 간 가게에서 “拗相公이 집권하여 新法을 만들어 재물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니,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버렸습니다. 설령 가난한 사람이 몇 남아 있어도 관부의 일로 분주한데, 어디 남의 일을 할 시간이 있나요? 더군다나 가난해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말을 기를 돈이 있나요?”라는 말을 듣는다.<sup>33)</sup> 王安石이 다시 拗相公이 누구인지 묻자

32) “저승에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착한 일을 행할 생각은 않고 집요하게 靑苗 등의 新法을 행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많은 해를 끼쳐,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고 여깁니다. …… 아버지께서는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부귀를 욕심내지 마십시오(陰司以兒父久居高位, 不思行善, 專一任性執拗, 行靑苗等新法, 蠹國害民, 怨氣騰天 …… 父親宜及蚤回頭, 休得貪戀富貴)”, 「拗相公飲恨半山堂」, 『警世通言』, 41쪽.

33) “自從拗相公當權, 創立新法, 傷財害民, 戶口逃散. 雖留下幾戶窮民, 只好奔走官差, 那有空役

상인은 그의 이름을 댈다. 王安石은 당황하여 도망치듯 나와 근처 찾집으로 가는데 벽에 그에 대한 비방의 글귀가 적혀있고, 다시 한 道院에 들어가니 자신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글이 있다.<sup>34)</sup> 다른 마을에 가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심지어 하룻밤 묵었던 민가의 노파는 닭과 돼지를 王安石과 拗相公이라고 부르며 그 원한이 매우 깊음을 말한다.<sup>35)</sup> 이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등장하는데, 이들은 王安石이 반드시 이 길을 지날 것을 알고 그를 때리려던 것이다. 가까스로 江寧에 도착한 王安石은 鍾山에 半山堂을 짓고 숙좌하며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스스로를 욕하더니 피를 토하며 죽는다.

『眉山秀』에서 「拗相公飲恨半山堂」의 내용을 채용한 부분은 「好遇」이다. 王雱과 관련된 앞부분과 江寧으로 가 정착해 살다가 죽음을 맞는 마지막 부분은 제외하고, 자신을 때리려는 사람들을 피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장면에서 마무리 지었을 뿐, 江寧으로 가는 도중의 에피소드는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반면 「拗相公飲恨半山堂」에서 “나는 福建子<sup>36)</sup>가 민간에서 新法을 아주 편리해한다는 말만 믿었기에,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행했는데, 원한이 이 정도일줄 어찌 알았겠는가! 이는 모두 福建子가 나를 망친 것이다.”<sup>37)</sup>라고 간단히 적힌 부분을 바탕으로 呂惠卿(1032~1111)을 등장시켜 새로운 에피소드를 구성했다. 王安石은 물러나면서 呂惠卿을 參知政事에 추천하지만, 呂惠卿은 王安石이 다시 돌아오면 자신이 정권을 장악할 수 없음을 걱정해 그와 그 동생 王安國을 모함하는데<sup>38)</sup>,

等雇? 況且民窮財盡, 百姓饗餐不飽, 沒閑錢去養馬驟.”, 위의 책 43쪽.

34)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는 地氣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천하가 어지러워지려면 地氣가 남에서 북으로 흐를 것이다. 옛날에는 洛陽에 두견새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은 바로 地氣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징조이다. 머지않아 天子는 분명 남쪽 사람을 제상으로 삼을 것인데, 그는 祖宗의 법도를 바꾸고 어지럽혀 宋朝는 결국 태평하지 못할 것이다(天下將治, 地氣自北而南, 天下將亂, 地氣自南而北. 洛陽舊無杜宇, 今忽有之, 乃地氣自南而北之徵. 不久天子必用南人爲相, 變亂祖宗法度, 終宋世不得太平).”, 위의 책 44쪽.

35) “현생에서는 그를 어찌할 수 없지만, 다음 생애에 다른 것으로 태어나면 삶아 먹어 가슴의 한을 풀 것이오(今世沒奈何他, 後世得他變爲異類, 烹而食之, 以快胸中之恨耳)”, 위의 책 49쪽.

36) 王安石은 呂惠卿이 福建省 출신이기에 이렇게 불렀다.

37) “我只信福建子之言, 道民間甚便新法, 故吾違衆而行之. 焉知天下怨恨至此! 此皆福建子誤我也”, 위의 책 48쪽.

38) “呂惠卿服闋, 安石朝夕汲引之. 至是, 白爲參知政事. …… 而惠卿實欲自得政. 忌安石復來, 因

이러한 과정에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진다. 『眉山秀』의 다음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末) 제가 가서 어떤 관리인지 볼까요? (나가서 본다) 아, 이제 보니 그분이시군. (다시 들어와 淨을 향하며) 어르신, 驛站에 묵으신 관리는 바로 參知政事 呂나라입니다. 오시라고 해서 만나보시겠어요? (淨) 조용히 가거라. (末이 나가 驛站으로 들어간다.) 呂 나라, 呂 나라. (丑) 누가 나를 부르지? (末) 저입니다. (丑이 자세히 보며) 누군가? (末) 저는 왕 나라 맥의 江居입니다. 계속 나라를 모셨는데, 어찌 못 알아보시는지요? (丑) 자네가 왜 여기 있나? (末) 나라를 모시고 江寧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나라께서 옆집에 묵고 계시는데, 呂 나라를 오시라고 합니다. (丑이 손을 저으며) 내가 開封을 떠나오는 도중, 사람들이 모두 너희 나라의 新法을 아주 증오하더군. 나도 미움 받지 않으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 (末) 그때 呂 나라도 新法에 동의하셨는데, 지금 만나는 것조차 꺼리시다니! (丑) 네가 어찌 알겠느냐! 처음 너희 나라가 【山麻稽】 재상이 되었을 때, 그 권세 대단해, 하인처럼 굽실대며 높은 벼슬 하나 얻으려고 했지. 지금은 무너진 氷山の 처지 되었네. (末) 한 번 만난들 무슨 상관있겠어요? (丑) 어찌 나에게 죄인을 만나, 그 곤궁함을 위해 함께 울고, 그 위급함을 함께 걱정하라고 하는지?39). …… 이 자를 내쫓고, 당장 문을 닫아라!40)

王安石은 江寧으로 가는 도중 직접 보고 들은 상황만으로도 이미 헤어날 수 없

鄭俠獄陷其弟安國，又起李士寧獄以傾安石.，「王安石傳」，『宋史』，中華書局，1985，10548쪽.

- 39) 원문은 牛衣偕泣과 涸轍. 牛衣偕泣은 漢代의 王章이 병이 들었는데 덮을 이불이 없어 소에게 덮어주는 풀을 덮고 울며 아내와 이별했다는데서 유래한 말로 곤궁한 처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涸轍은 차바퀴가 지나가 물기가 사라진 도랑이라는 뜻으로 역시 곤궁한 처지에 놓인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40) “(末) 待我去看那一個官府? (作出看介) 呀, 原來就是他. (復入, 向淨介) 老爺, 那驛中到的官, 就是參政呂爺, 可要去請他來會會? (淨) 悄悄地去. (末作出, 進驛介) 呂爺, 呂爺. (丑) 是那個叫我? (末) 是我. (丑細看介) 你是那個? (末) 我是王府中江居, 日逐伏侍老爺的, 怎麼不認得了? (丑) 你爲何在此? (末) 我隨老爺前往江寧, 目今老爺寓在間壁人家, 特請呂爺去相見. (丑搖手介) 我出京來, 一路的人恨得你老爺新法得緊, 我也要避嫌疑, 不便相見了. (末) 就是新法, 也是呂爺早晚同議的, 如今見也不肯一見! (丑) 你那裏曉得, 當初你老爺呵! 【山麻稽】登相位, 多權要, 我只索婢膝奴顏, 博得個紫綬金貂, 今朝, 早做了瓦解冰山倒. (末) 就會一會何妨? (丑) 怎教我楚囚相對, 牛衣偕泣, 涸轍同焦. …… 然這個人出去! 快些關門!”李玉『眉山秀·奸遇』, 989쪽.

는 절망을 경험했는데, 여기에 평소 자신에게 충성하며 함께 新法을 추진해 '新法의 수호신'이라 일컬어지던<sup>41)</sup> 呂惠卿까지 등을 돌리니 얼마나 우스운 처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물을 떠난 용이 새우에게 조롱당하고, 숲을 떠난 봉황이 까치에게 희롱당하는"<sup>42)</sup> 극중 인물의 비참한 처지와 심경을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구성이라 할 수 있다.

##### 5) 「五戒禪師私紅蓮記」

「五戒禪師私紅蓮記」는 明 洪楸의 話本小說集 『清平山堂話本』에 수록되어 있다. 宋 英宗(1032~1067) 年間, 杭州의 淨慈孝光禪寺에 五戒와 明悟라는 두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五戒가 앉아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수행자 淸一에게 가보라고 하니, 잠시 후 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다. 아이의 품속에는 생년일시와 紅蓮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五戒는 淸一에게 오류 년 키운 뒤 다른 사람의 집으로 보내라고 한다. 어느 덧 아이는 10살이 되고, 五戒는 이 일을 까맣게 잊는다. 淸一 역시 아이와 정이 들어 五戒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키운다. 아이가 16세가 된 어느 날, 五戒는 문득 이 일이 생각 나 淸一에게 물었고, 淸一이 데려 온 紅蓮을 본 五戒는 순간 마음이 동해 과거를 한다. 이 일을 안 明悟가 그 잘못을 낫지시 얘기하자 五戒는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앓은 채로 입적한다. 소식을 들은 明悟 역시 五戒의 뒤를 따른다. 五戒는 蘇軾으로 환생하고, 明悟는 謝端卿이라는 인물로 환생해 후일 佛印이라는 스님이 된다. 蘇軾은 어렸을 때부터 문장에 뛰어나 翰林學士를 거쳐 端明殿大學士에 오른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는데 그가 바로 蘇軾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佛印이다. 蘇軾은 佛印의 글재주가 훌륭한 것을 보고 이후 자주 왕래하며 함께 시를 짓는다. 蘇軾이 폄적되어 지방으로 가면 佛印 역시 언제나 그 지역의 주지스님으로 갈 정도로 친히 지냈다. 蘇軾은 佛印을 만나기 전에는 불법을 믿지 않고, 관리가 되던 중을 없앨 것이라 말할 정도로 승려를 싫어했으나, 佛印의 영향으로 因果

41) "惠卿爲護法善神", 『王安石傳』, 『宋史』, 中華書局, 1985, 10548쪽.

42) "龍離淺水遭蝦戲, 鳳出深林被鵲欺", 李玉 『眉山秀·奸遇』, 989쪽.

의 깨달음을 얻는다.<sup>43)</sup> 이후 蘇軾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翰林學士·禮部尙書·端明殿大學士 등을 지내고, 늙어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마치는데, 사후에 大羅天仙<sup>44)</sup>이 된다. 佛印은 臨安의 靈隱寺에서 입적하고, 사후에 至尊古佛이 된다.

『眉山秀』·『點悟』는 위의 「五戒禪師私紅蓮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紅蓮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만 채용하고, 이를 위해 佛印이 端明殿大學士에 오른 蘇軾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꿈속에서 五戒가 되어 紅蓮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거의 같다.

佛印은 『眉山秀』의 「前遊」와 「後遊」에도 등장한다. 「前遊」와 「後遊」는 모두 蘇軾의 赤壁 유람을 소재로 한 것이다. 이는 蘇軾이 黃州에 유배되었던 元豐5年(1082) 7월과 10월의 일이다.<sup>45)</sup> 蘇軾의 『赤壁賦』와 『後赤壁賦』에는 함께 유람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前遊」에서는 佛印과, 「後遊」에서는 黃庭堅·佛印과 함께 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前遊」의 내용은 사실 제목처럼 赤壁 유람에 그 중점이 있지 않다. 첫 부분에서 杭州의 관원이 등장해 “茅山河와 鹽橋河를 준설하고, 六井을 다시 열어 백성을 편리하게 했다. 또한 호수를 둘러보며, 호수를 준설하려면 수초를 제거하고, 수초를 제거하려면 막힌 진흙을 파내야 한다고 했다. …… 이에 파낸 흙으로 남으로는 翠屏山까지, 북으로는 栖霞嶺까지 긴 제방을 쌓아. …… 제방 사이에 六橋를 세우고 복숭아와 버드나무로 에워싸니, 멀리서 보면 마치 비단을 보는 듯하고, 사람들은 이를 蘇堤라고 부른다.”<sup>46)</sup>라며 蘇軾의 治績을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 역시 赤壁 유람 중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蘇軾의 관리로서의 면모를 부각하였다. 「後遊」는 「前遊」보다 赤壁에서의 감회를 표현한 부분이 조금 더 많지만, 蘇軾이 홀로 가파른 바위를 오를 때 홀연히 한 도사가

43) 「五戒禪師私紅蓮記」: “只是不信佛法, 最不喜和尚, 自言”我若一朝官了軍民, 定要滅了這和尚們. …… 盖因是佛印監着蘇子瞻, 因此省悟前因.”

44) 道教에서는 우주를 三十六天으로 나누는데 大羅天은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한다.

45)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 돌베개, 2013, 164~181쪽.

46) “遂浚茅山·鹽橋二河, 復開六井, 普利萬民. 又周視湖上, 道欲浚湖水, 必去葑田, 欲去葑田, 無由積土. …… 南至翠屏山, 北至栖霞嶺, 築成長堤. …… 堤間說造六橋, 堤上遍栽桃柳, 望若雲錦, 人喚蘇堤.”, 李玉『眉山秀·前遊』, 953~954쪽.

나타나 赤壁 유람이 즐거웠는지를 묻고<sup>47)</sup>, 다시 “참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도, 어찌 부질없는 벼슬에 연연하는가?”<sup>48)</sup>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역시 그 중점이 유람에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點悟」·「前遊」·「後遊」는 동일한 하나의 주제, 즉 蘇軾의 정신세계를 그려내기 위해 설정된 장면이다. 蘇軾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깨우침을 주는 佛印을<sup>49)</sup> 「前遊」·「後遊」에서도 등장시킨 것은 이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點悟」에서 蘇軾은 佛印으로 인해 因果의 깨달음을 얻어 세상사의 이치를 이해한다. 그러나 내면에는 부귀공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sup>50)</sup>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 사실 「前遊」에서 언급한 蘇軾의 治績은 黃州에서의 일이 아니고, 元祐4年(1089) 54세가 되던 해 杭州로 부임하여 2년간 있을 때의 일이다.<sup>51)</sup>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바꾼 것은 부귀공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그의 내면심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後遊」 중의 유람이 즐거운지를 묻는 도사의 물음에 대한 蘇軾의 “여기저기 흠어져있는 山水 실컷 보고, 밝은 달 맑은 바람 돈으로 살 필요 없으니, 감흥은 무한하고 즐거움이 절로 넘친다오.”<sup>52)</sup>라는 대답에서 功名에 연연하지 않고 참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달관적인 태도를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참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도, 어찌 부질없는 벼슬에 연연하는가?”라는 도사의 반문은 그 이면에 여전히 심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도사는 바로 蘇軾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이다.

47) 이는 蘇軾의 『後赤壁賦』 가운데 “꿈에 한 도사가 羽衣를 펼럭이며, 臨臯亭을 지나가는데, 나에게 인사하며 赤壁 유람이 즐거웠는지 물었다. 그 이름을 물으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는다. 오호라, 알겠구나. 지난 밤, 울면서 나를 스쳐 날아간 것이, 그대 아닌가? 도사는 웃기만 했다. 나 역시 놀라 깨어, 문을 열고 보았지만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夢一道士羽衣翩躚, 過臨臯之下, 揖予而言曰, 赤壁之遊樂乎. 問其姓名, 俛而不答. 嗚呼噫嘻, 我知之矣. 疇昔之夜, 飛鳴而過我者, 非子也耶. 道士顧笑, 予亦驚悟, 開戶視之, 不見其處).” 라는 내용을 근거로 구성한 것이다.

48) “早知眞樂處, 何用戀餘官?”, 李玉 『眉山秀·前遊』, 968쪽.

49) “故爾山僧處處跟隨, 言言提醒”, 李玉 『眉山秀·後遊』, 965쪽.

50) “我亦未能消夢想”, 李玉 『眉山秀·前遊』, 957쪽.

51)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 돌베개, 2013, 209~221쪽.

52) “殘山剩水, 可以目窮. 明月清風, 不用錢買. 興眞無限, 樂自有餘”, 李玉 『眉山秀·前遊』, 968쪽.



이상은 取材와 構成의 측면에서李玉의『眉山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李玉의『眉山秀』가 '문인의 사랑과 풍류에 관한 미담을 모아 엮은' 내용이 진부하고 구성이 번잡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眉山秀』 전체에서 기존 작품의 내용이 그대로 채용된 부분은 「完詩」·「譽兒」·「品婿」·「參禪」·「乞聯」·「婚試」·「歸山」·「互難」·「奸遇」·「點悟」이다. 이는 전체 28齣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秦觀과 文娟에 관한 내용을 다룬 「詞話」·「裁賦」·「僞鬪」·「契合」·「促行」·「改妝」·「庵遇」·「求詩」·「內召」·「逐姬」·「團圓」 등은 秦觀과 義妓의 일을 소재로 하였지만 그 내용이 많이 달라 재창작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辨奸」·「劾謫」·「前遊」·「後遊」·「設計」·「負圖」 역시 내용의 전개를 위해 새로 구성된 부분이다. 우선 내용면에서 볼 때, 극 전체의 분량 중 秦觀·蘇小妹·文娟 세 사람의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 17齣이나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와 다른 蘇氏 일가와 王安石의 정치 투쟁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이 극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에 '문인의 사랑과 풍류에 관한 미담'만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재창작된 부분이 3분의 2에 해당하기에 기존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것'이라는 말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성면에서 볼 때 取材의 대상이 다섯 편이나 되는 경우 작가적 재능이 부족하다면 자칫 진부하고 번잡해지는 폐단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眉山秀』는 기존의 이야기와 새로 구성된 이야기가 서로 잘 연계되도록 재배치하고, 극중 인물 역시 재배치된 구성 안에서 그 성격 특성에 부합하도록 잘 형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眉山秀』 「歸山」·「互難」에서 蘇軾을 「王安石三難蘇學士」에서와 달리 형상한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 蘇洵의 형상 또한 「蘇小妹三難新郎」에서는 “荊公 王安石은 …… 이후 蘇軾과 蘇轍이 연이어 制科에 합격해 등용되는 것을 보고, 품고 있던 원한을 버리고 잘 지냈고, 老泉 蘇洵 역시 王安石이 재상의 자리에 있기에 두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여 뜻을 굽혀 교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53)</sup>라고 했지만,『眉山秀』 「完詩」에서는 王安石이 만나기를

53) “王荊公 …… 後來見他大蘇小蘇連登制科，遂舍怨而修好。老泉亦因荊公拜相，恐妨二子進取之

칭하는 전갈이 오자 이맛살을 찌푸리며 달갑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饗兒」에서는 王安石의 앞에서 “조상의 제도를 바꾸어, 천하의 이목을 놀라게 했으니, 사대부들 간에는 여론이 들끓고, 민심도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sup>54)</sup>라며 新法의 폐해를 지적한다. 王安石의 아들 王雱 또한 「蘇小妹三難新郎」과 「拗相公飲恨半山堂」에서는 그 이름만 거론되었지만, 「饗兒」에서는 무대에 등장시켰을 뿐 아니라, 蘇洵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자신의 문장을 가져와 蘇洵에게 보여주고 가르침을 청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웃으며 “나의 문장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한단 말인가?”<sup>55)</sup>라며 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에게는 “보고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오늘도 新法, 내일도 新法 타령을 해대는데, 韓琦와 富弼을 죽여 머리를 거리에 걸고 시행하면 그만이다.”<sup>56)</sup> 라고 하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王安石까지 경악하게 한다. 「饗兒」에서 王雱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형상한 것은 후에 그가 呂惠卿과 함께 蘇氏 일가를 모함하는 계책을 짜는 장면인 「設計」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성이다.

### 3. 創作意義

『眉山秀』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평가는 사상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작가가 무슨 의도에서 작품을 창작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李玉은 왜 蘇軾 일가와 관련된 일을 작품의 素材로 삼은 것일까? 『曲海總目提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극본 『眉山秀』는 事實과 세간에 전해지는 소설의 내용을 모아 엮어 耳目을 즐겁게 하고자 하였다.<sup>57)</sup>

路, 也不免曲意相交.”

54) “更祖宗制度, 駭天下耳目, 未免士論沸騰, 民心騷動.”

55) “我的文章還要請教誰來.”

56) “(見客不揖介), 今日也新法, 明日也新法, 梟韓琦·富弼之首于市, 則新法就行了.”

사람들의耳目을 즐겁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은 분명 흥행을 고려했다는 말이다. 錢謙益의 『眉山秀題詞』에는 “열흘도 안 되어 완성되었는데, 물고기도 나와 듣고 구름도 멈출 정도로 훌륭하다.”<sup>58)</sup>라는 말이 있어, 『眉山秀』가 흥행에도 성공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李玉의 작품이 천하에 유행하여, 한 단락이 나올 때마다, 鷄林의 好事家들이 다투어 가락을 입혔다.”<sup>59)</sup>라는 말과 당시 수십 편에 달하는 多作을 남겼던 작가임을<sup>60)</sup> 고려할 때 열흘 만에 작품 한 편을 완성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열흘 만에 작품을 완성하려면 기존의 素材를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고, 더욱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의 이야기라면 관객의耳目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기에 선택된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錢謙益의 『眉山秀題詞』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元豐 시기, 蘇軾 부자처럼 뛰어난 경륜을 지니고 人才를 아끼는 자가 궁지에 몰려 유배되고, 秦觀이 忠情의 문장을 올렸으나 그 뜻 살피지 않아 결국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으니, 아마 이에 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호라! 뛰어난 인재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가 슬퍼한 바이다. 이것이李玉으로 하여금 안타깝고 분개한 마음이 일게 한 것이다.<sup>61)</sup>

이는 다른 측면에서 取材의 이유를 시사해주는 말이다.李玉은 “수십 종의 傳奇를 지어, 무대 위의 노래와 웃음과 욕설 속에 전달하려는 은미한 뜻을 기탁하였다. 즉 忠臣·孝子·節婦·烈士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는 가운데 전달하고자 한 은미한 뜻을 모두 드러내었다.”<sup>62)</sup>라고 한 것처럼 주로 현실적 경향이 강한 작품을 지

57) “劇本眉山實事, 及流俗相傳小說等, 攢簇成編, 以悅耳目.”, 黃文暘 『曲海總目提要』 권22, 天津市古籍書店, 1992, 1406쪽.

58) “不浹旬而『眉山秀』成已, 令魚出聽而雲爲停矣.”, 錢謙益 『眉山秀題詞』, 『歷代曲話彙編·清代編』, 黃山書社, 2008, 66쪽.

59) “元玉言詞滿天下, 每一紙落, 鷄林好事者爭被管絃”, 위의 책 66쪽.

60) 王國維의 『曲錄』에는 33편, 高奕의 『新傳奇品』와 無名氏의 『新傳奇品』에는 32편, 無名氏의 『重訂曲海總目』·梁廷枏의 『曲話』·姚燮의 『今樂考證』 등은 31편을 지었다고 되어있다.

61) “因有慨於元豐之季, 抱經濟才如玉局父子, 而侘傺窮徒, 秦太虛忠義文章, 不究其用, 至埋骨貶所. 嗟乎! 才爲世忌, 千古同悲. 此元玉所爲擊碎唾壺, 五嶽起於方寸.”, 위의 책 66쪽.

있던 작가이다. 이러한 성향의 작가에게 이 같은 정치상황은 ‘은미한 뜻을 기탁’하기에 좋은 素材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蘇軾과 그 일가의 일을 빌어 이를 표현하면 그 효과가 더 배가될 것은 자명하다.

다음은 『眉山秀』에 묘사된 당시의 정치 상황의 살펴보고자 한다.

(淨) 新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세상 물정에 어두운 몇몇 고지식한 人士들이 한사코 德政을 가로막기 때문이지. 聖上께서 司馬光·歐陽修 등은 이미 外地로 보냈고, 韓琦(1008~1075)<sup>63)</sup>와 富弼(1004~1083)<sup>64)</sup>만이 고집을 피우며 굴복하지 않으니, 호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겠군.<sup>65)</sup>

(外) 어제 富弼과 韓琦 두 재상이 王安石과 新法에 대해 논쟁했는데, 聖上께서 그날로 파직시켜버렸다. 또 관원들에게 한 사람도 그들을 배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다.<sup>66)</sup>

(묘) 저는 蘇氏입니다. 지난 가을 부모님께서 蜀으로 가셨는데, 지금 벌써 늦봄이 되었군요. 큰 오라버니 子瞻은 승상의 노여움을 사 杭州知州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新法으로 인한 혼란으로 나랏일이 날로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어제 상소문을 완성하여 오늘 아침 조정에 들어가 직접 아뢰었답니다. …… (雜이 등장한다.) 聖旨를 받들라! (묘과 丑이 내려가는 척하고, 생은 끊어앉는다. 雜) “승상이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짐

62) “所著傳奇數十種，即當場之歌呼笑罵，以寓顯微闡幽之，忠孝節烈，有美斯彰，無微不著。”吳偉業，「北詞廣正譜序」，『吳梅村全集』，上海古籍出版社，1990，1214쪽.

63) 北宋의 政治家이자, 문인. 군을 통솔하여 西夏를 방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仁宗·英宗·神宗에 걸쳐 등용되어 승상으로서 10년, 지방관으로 10여년을 보냈는데,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충신이다.

64) 北宋의 명재상이고, 遼에 사신으로 갔다가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등 외교 방면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다. 範仲淹 등과 慶曆新政을 추진하고, 河北 수비에 대한 12가지 대책을 올렸다. 至和2年(1055) 文彥博과 더불어 宰相이 되었으나 모친상으로 물러난다. 熙寧2年(1069)에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王安石의 新法을 반대하여 亳州로 폄직되어 元豐6年(1083) 생을 마감한다.

65) “(淨) 新法不行，皆因幾個迂儒不通世務，固阻德政。聖上已將司馬光·歐陽修等安置外府去了，獨有韓琦·富弼倔強不服，少不得與他一個辣手”，李玉『眉山秀·譽兒』，909쪽.

66) “(外) 昨日富·韓二丞相與王介甫爭論新法，聖上將他即日罷歸。又傳旨朝官員，不許一人送他”，李玉『眉山秀·辨奸』，931쪽.

은 믿고 의지하는 바인데. 秦觀은 어찌 근거 없는 말로 모함하여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는가! 중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나, 秘書省에서의 공로를 생각하여 우선 郴州酒稅監에 봉하노라.”<sup>67)</sup>

이상은 王安石의 新法에 반대한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서 축출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王安石의 新法은 극중에서 蘇洵이 “체도를 바꾸고, 충신을 내쫓아, 천하는 위협에 처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 과중한 賦役으로 천하가 들끓는다.”<sup>68)</sup>라고 한 것처럼 많은 폐단을 가져왔지만, 사실 蘇軾이 무조건 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元豐8年(1096), 司馬光(1019~1086)이 재상이 되어 新法의 폐지를 추진하며 差役法의 회복을 주장했을 때 蘇軾이 한 말이다.

差役과 免役은 각기 그 이익과 폐해가 있습니다. 免役의 폐해는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여 열 집에 아홉은 알거지로 만들고, 약탈한 재물은 모두 위로 올라가 아랫사람들은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差役의 폐해는 백성들이 항상 官府를 위해 일해야 하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고, 탐욕스럽고 교활한 관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 두 법의 폐해는 대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69)</sup>

이처럼 蘇軾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新法의 取舍 여부를 판단했다. 蘇軾은 王安石에 대해서도 그 文才를 높이 평가해 말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sup>70)</sup> 이 역시 그가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

王安石 또한 蘇軾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

67) “(旦) 奴家蘇氏, 憶自去秋雙親入蜀, 今已春暮. 大兄子瞻, 因觸忤時相, 出知杭州. 丈夫目擊新法橫亂, 國事日非, 昨已著就疏草, 今早入朝面奏. …… (雜上) 聖旨下. (旦·丑) 虛下, 生跪介. 雜) “相臣碩畫經邦, 朕方倚賴. 秦觀何得浮詞詆毀, 搖亂朝綱! 本該重處, 因念效績祕書, 姑貶郴州酒稅監”, 李玉 『眉山秀·劾謫』, 951쪽.

68) “(外) 紛更制度, 斥逐忠良, 四海倒懸, 萬民塗炭. …… 賦役繁重, 天下騷然.”, 李玉 『眉山秀·辨奸』, 934쪽.

69) “差役, 免役, 各有利害. 免役之害, 揶斂民財, 十室九空, 斂聚于上而下有钱荒之患. 差役之害, 民常在官, 不得专力于农, 而贪吏猾胥得缘为奸. 此二害轻重, 盖略等矣”, 『蘇軾傳』, 『宋史』, 中華書局, 10810쪽.

70)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 돌베개, 2013, 186~188쪽.

는 『眉山秀·譽兒』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淨) 어제 사람을 보내 蘇洵 이 영감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늘 왜 안 오는 거지? (丑) 왜 오라고 하시나요? (淨) 자고로 큰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먼저 人望을 얻어야해. 道學의 우두머리인 程頤도 이미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데, 문단의 영수인 蘇洵이 어찌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용납하리? 더군다나 그의 두 아들도 많은 사람이 따르니. 이 영감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많은 경박한 무리들이 모두 말없이 복종할거야. …… 그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그도 손해는 아니지.」<sup>71)</sup>

蘇軾은 筆禍事件인 烏臺詩案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까지 이른다. 『眉山秀·設計』중의 다음 장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副淨) 어제 아버님께서 蘇氏 형제와 사위를 모략에 빠뜨리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呂兄께서 무슨 묘안이 있으신지요? …… (丑) 그들은! 【南呂過曲】 【大遶鼓】 문단에 그 명성 자자하고, 中山의 毛穎같은 文才로<sup>72)</sup> 의 미심장한 구절 마구 써대니, 꼬투리 잡아 곤경에 빠뜨리는 일 헛되지 않으리. 뿌리까지 뽑으려면 어찌 관대할 수 있으리. 뛰어난 문장에서 말미암은 죄로 올라가면 씌우리. (副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丑) 제가 이미 찾아냈습니다. 聖上께서 시행하신 水利法에 대해 “동해 용왕이 황제의 뜻 안다면, 갯벌을 뽕나무 밭으로 변하게 해주시리라.”<sup>73)</sup> 라고 했고, 聖上께서 소금 판매를 금지시킨 것을 “어찌 韶樂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 있었다고 하리, 근래 석 달은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만 먹었네.”<sup>74)</sup> 라고 했으니, 蘇軾을 주모자로 삼고 蘇轍과 秦觀까지 포함시켜 “당파를 결성해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임금과 新法을 비방한다.”라고 탄핵하여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副淨이 박수를 치며) 훌륭해요, 훌륭해!<sup>75)</sup>

71) “(淨) 昨日着人去招蘇洵這老頭兒, 怎麼今日不來? (丑) 請他則甚? (淨) 自古欲大設施, 必須先收人望. 那程頤是道學班頭, 已曾傾心歸附, 想蘇洵是文章領袖, 豈用鼓舌異同? 況他二子, 衆望所歸. 若把這老頭兒收入吾黨, 那許多輕薄後生一個個俯首無言矣. …… 他的女兒, 做了吾家媳婦, 也不虧他”, 李玉 『眉山秀·譽兒』, 909쪽.

72) 韓愈의 「毛穎傳」에 나오는 인물. 毛는 붓의 털이고 穎은 붓의 자루로 붓을 의인화하여하여 쓴 글이다.

73) 이는 蘇東坡가 지은 「八月十五日看湖五絕」 중의 한 부분이다.

74) 이는 蘇東坡가 지은 「山村五絕」 중의 한 부분이다.

75) “(副淨) 昨日老父所言計陷蘇家弟兄甥舅, 未識盟盟曾有妙計否? …… (丑) 他們呵! 【南呂過

烏臺詩案은 元豐2年(1079)에 일어났다. 新法黨은 20여수에 달하는 蘇軾의 시를 문제 삼았고, 당시 22명의 사람이 연루될 정도로 과장이 큰 사건이었다. 蘇軾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였는데, 아이러니하게 당시 정계에서 물러나 있던 王安石이 올린 상소문 중의 “어찌 盛世에 才士를 죽이리?”<sup>76)</sup>라는 말 한마디가 蘇軾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다.

新法 가운데 일부 취할만한 것이 있음에도 반대가 극심하고 실패로 끝난 것은 개혁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sup>77)</sup> 王安石의 편벽된 성향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王安石의 ‘三不足’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관한 『眉山秀·辨奸』의 묘사를 살펴보자.

(외가 급히 따라가며 부른다.) 왕 승상, 왕 승상. 나 蘇洵 소순이 할 말이 있으니 기다리시오! ..... (淨이 급히 가마에서 내려 예를 갖추다. 外) 그대가 시행하는 훌륭한 新法이 제도를 바꾸고, 충신을 내쫓아, 천하는 위협에 처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 과중한 賦役으로 천하가 들끓는 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소? (淨이 웃으며) 지금까지 천재지변은 두려워할 바가 못 되고, 사람의 말은 걱정할 바가 못 되며, 先祖의 법은 고수할 바가 못 되거늘, 왜 굳이 이처럼 집착하는가!<sup>78)</sup>

曲】【大遼鼓】詞壇名久轟，杖中山毛穎，橫逞機鋒。撥草尋蛇非虛哄，除根斬草怎寬容。罪過風流，請入甕中。(副淨)只是也要有個實據纔好。(丑)小弟已訪在此了。聖上開水利，他道“東海若知明主意，應教斥鹽變桑田。”聖上謹鹽禁，他道“豈是聞韶解忘味，邇來三月食無鹽。”把蘇軾裝頭，嵌入蘇轍·秦觀在內，使一言官彈他們“樹黨興謠，謗主毀法。”一網打盡，有何不可。(副淨拍手介)妙，妙，李玉『眉山秀·設計』，972쪽.

76) “安有盛世而杀才士乎”，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돌베개, 2013), pp.124.

77) “소신은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따르며, 아직 행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일의 이익과 폐해, 신하들의 옳고 그름을 조용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 폐하께서 큰일을 하심에 오직 빠른 것이 걱정일 뿐 느린 것은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신은 급진적이면서 이익을 좇는 자들이, 폐하께 경솔하게 바꿀 것을 권할 것이 걱정되어, 이러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臣愿虚心循理，一切未有所为，默观庶事之利害，与群臣之邪正。.....，陛下之有为，惟忧太蚤，不患稍迟，亦已明矣。臣恐急进好利之臣，辄劝陛下轻有改变，故进此说).”『蘇軾傳』，『宋史』，中華書局，1990，10816쪽.

78) “(外趕上叫介) 王丞相，王丞相，俺蘇洵在此，有話候你講哩! ..... (淨下轎，揖介。外) 你行得好新法，紛更制度，斥逐忠良，四海倒懸，萬民塗炭。..... 賦役繁重，天下騷然，還不動心麼? (淨笑介) 從來天變不足畏，人言不足恤，祖宗之法不足守。何苦拘執乃爾!”，李玉『眉山秀·辨奸』，934쪽.

王安石과 蘇氏 일가의 정치 투쟁에 도화선이 된 것은 蘇洵의 「辨奸論」이다. 蘇洵은 “지금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공자와 노자의 말씀을 읊조리고 몸으로는 백이와 숙제의 덕행을 실천에 옮기면서, 명예를 좋아하고 뜻을 얻지 못한 선비를 모으고 있다. ……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 죄수처럼 산발하고 상을 당한 사람의 얼굴로 『詩經』과 『書經』을 이야기하니 이것이 어찌 인지상정에 맞는가?”<sup>79)</sup> 라고 했는데, 이 역시 『眉山秀·辨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인지상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짐을 통해 그로 인해 천하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니, 자신의 말처럼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80)</sup>

王安石은 熙寧7年(1074)에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는 鄭俠(1041~1119)의 「流民圖」와 「論新法進流民圖疏」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眉山秀·負圖』는 이를 묘사한 것이다.

(未이 冠帽를 쓰고, 笏을 들고, 그림을 메고 등장한다) …… 저 鄭俠은 비록 말단 관리이지만, 충성스럽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 聖上께서 간사한 자를 충신이라 여기시고, 신하들은 침묵으로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니, 이를 어찌하랴! 이처럼 어두운 밤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정치 없이 떠도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상소문을 썼습니다. 聖上께서 노여워하시더라도 적극 간언을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 聖上의 심기가 상해 노하시면, 궁궐 계단에 머리를 박고 죽겠습니다. 기세등등한 간신이 파직되고, 新法을 폐기되면, 나 鄭俠은 죽는다고 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81)</sup>

鄭俠은 당시 가뭄으로 流民이 증가한 것을 기회로 삼아 “가뭄은 王安石으로 인한 것이고, 그를 파면하면 하늘이 반드시 비를 내릴 것입니다.”<sup>82)</sup>라고 상소하였

79) “今有人, 口誦孔老之言, 身履夷齊之行, 收召好名之士, 不得志之人. …… 夫面垢不忘洗, 衣垢不忘澣, 此人之至情也. …… 囚首喪面而談詩書, 此豈其情也哉.”, 蘇洵 「辨奸論」.

80) “天下將被其禍, 而吾獲知言之名.”, 蘇洵 「辨奸論」

81) “(未衣帽, 執笏, 背圖上) …… 我, 鄭俠. 職雖下僚, 心懷忠義. …… 怎奈聖上信佞爲忠, 朝臣以默作福, 長夜不旦, 必至喪亡. 爲此把百姓流離的光景, 繪成一圖, 寫就奏章, 犯顏極諫. 倘若櫻鱗觸怒, 拚得碎首金階. 萬一削奪權奸, 革除新法, 我鄭俠死亦瞑目矣.”, 李玉 『眉山秀·負圖』, 974쪽.



다. 이 일로 鄭俠은 嶺南으로 유배되지만, 태후까지 나서 “王安石이 천하를 망쳤다.”<sup>83)</sup>라고 호소하자 결국 그를 파면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李玉의『眉山秀』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당시의 정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 극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蘇軾 일가의 정치적 투쟁과 좌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생생히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王安石으로 인해 蘇氏 일가가 겪어야했던 정치적 좌절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新法을 반대한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李玉이 이를 소재로 택해 희곡을 창작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극중 인물을 새로 형성한 것은 분명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의 확고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錢謙益의「眉山秀題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丙戌年, 내가 蘇州 拙政園에 거처할 때李玉의 극작을 읽고 그 심오한 뜻을 모두 알 수 있었다. 協律都尉 李延年이라 할지라도 그 칭아하면서도 부드러운 가락을 칭찬할 것이고, 음률에 뛰어난 周瑜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집어내지 못할 것이다.<sup>84)</sup>

順治 甲午年 9월, 拂水山房에서 적다.<sup>85)</sup>

丙戌年은 淸 順治3年(1646)이고, 順治 甲午年은 1654년이므로,『眉山秀』는 창작 시기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淸 나라가 멸망한 1644년 이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부패가 팽배하여 패망의 일로를 향하던 淸나라 초기를 당시 사람들은 ‘天崩地裂’의 시대라고 일컬었다.<sup>86)</sup>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

82) “早由王安石所致. 去安石, 天必雨”, 「王安石傳」, 『宋史』, 中華書局, 10548쪽.

83) “慈聖, 宣仁二太后流涕謂帝曰, 安石亂天下”, 위의 책 10548.

84) “丙戌歲, 予寓郡城拙政園居, 得盡讀其奚囊中秘義, 即使延年協律, 當亦賞其清柔, 善顧周郎, 無能摘其絀繆.”, 錢謙益「眉山秀題詞」, 『歷代曲話彙編·淸代編』, 黃山書社, 2008, 66쪽.

85) “順治甲午歲菊月, 題於拂水山房并書.”, 위의 책 67쪽.

86) 淸나라 초기의 학자 黃宗羲(1610~1695)는「留別海昌同學序」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시대에 처했음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서로 같고 다름을 따지며 자신을 도학자라 한다(天崩地解, 落然無與吾事, 猶且說同道異, 自附于所謂道學者)”

여금 누구나 세상을 구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했고, 이로 인해 역사를 말하는 것이 풍조가 되었다.<sup>87)</sup>李玉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무너진 역사를 들추면, 정신을 잃을 듯하다.”<sup>88)</sup>라고 하였다. 新法을 둘러싸고 벌어진 黨爭은 후일 “宋朝의 精氣는 熙寧 시기의 變法으로 모두 파괴되고, 이로써 靖康의 變이<sup>89)</sup> 있게 된 것.”<sup>90)</sup>으로 간주된다. 明末清初 환관 魏忠賢(1568~1627)의 무리 閹黨과 이를 반대하는 東林黨<sup>91)</sup> 사이에 벌어진 정치 투쟁은 그 양상이 新法으로 인해 당쟁이 격화되었던 宋代와 너무도 흡사하다. 魏忠賢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東林黨을 무고하여 대대적인 옥사를 일으켜 조정 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sup>92)</sup>李玉은 東林黨의 한 사람인 周順昌(1584~1626)과 閹黨 간에 벌어진 정치 투쟁을 소재로 한 『清忠譜』를 지어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였다. 이들 간의 당쟁은 魏忠賢이 축출된 懿宗(1617~1683) 이후에도 이어져 南明<sup>93)</sup> 시기까지 계속되었으니, 그 멸망의 조짐은 이미 이들의 당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쟁이 벌어지던 당시 조정의 상황, 특히 당시 통치자의 통치 능력 또한 너무 흡사하다. 明 神宗(1563~1620)은 거의 20여 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sup>94)</sup>,

라며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87) 顧炎武는 『日知錄』 권13에서 “천하의 흥망은 천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天下興亡, 匹夫有責)”라고 했고, 黃宗羲는 「談孺木墓表」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를 즐겨 말하고 지었다(不論何人, 皆好言作史)”라는 말이 있다.
- 88) “思往事, 心欲裂, 挑殘史, 神爲越”,李玉, 『清忠譜·譜概』, 『李玉戲曲集』, 1291쪽.
- 89) 北宋의 수도 開封이 靖康(1126~1127) 연간에 金나라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이로써 北宋이 멸망한 사건.
- 90) “後人論宋朝元氣, 都爲熙寧變法所壞, 所以有靖康之禍.”, 「拗相公飲恨半山堂」, 51쪽.
- 91) 萬曆32年(1604), 顧宪成·高攀龍·錢一本 등이 宋代 楊時가 講學하던 東林書院에서 학술 활동을 벌이면서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형성한 정치집단이다. 당시의 정치적 폐단을 비판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 92) 『明通鑒』 권80 「憲宗」 부분에 “혹시 魏忠賢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들여 죽이고, 심지어 살갓을 벗기고 혀를 뽑는 혹형에 처하기도 했다(或觸魏忠賢, 卽被擒戮, 甚至剥皮割舌, 加之酷刑).”라는 말이 있어 당시 정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93) 1644년 明 나라가 망한 이후, 遺臣들이 華中과 華南 등지에서 왕족을 옹립하여 세운 왕조로 淸에 저항하며 부흥을 도모했다.
- 94) 『明通鑒』 권74 「神宗」 부분에는 “萬曆 이래 이십년 동안 궁궐 깊숙한 곳에만 있어, 모든 신하들은 입금을 만날 수 없었고, 조석으로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환관에 지나지

熹宗(1605~1627)은 宦官 魏忠賢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sup>95)</sup> 『宋史·王安石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神宗이 “新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들었소.”라고 하자, 安石이 “백성들은 매서운 추위와 폭우도 원망할 것이니, 이는 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이에 神宗이 “매서운 추위와 폭우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없도록 할 수는 없단 말시오?” 라고 했다. 安石은 불쾌해 하며, 물러나와 병을 핑계로 누웠다. 神宗이 위로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sup>96)</sup>

임금 앞에서도 안하무인인 王安石의 비위를 맞추는 神宗이나, 魏忠賢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했던 熹宗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眉山秀·負圖』에는 神宗이 王安石을 파면시킬 때 “승상 王安石이 新法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고, 짐이 한 때 그것을 잘못 이해해 시행했던 것이다.”<sup>97)</sup>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후 宋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있게 한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능함이 극에 달한 통치자의 실제 형상과 완전히 부합한다.李玉이 이러한 점까지 예리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명확한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던 작가임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亡國의 상황을 경험한 문인들이 王權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하던 明末清初 學風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98)</sup>

않았다 (自萬曆二十年來, 深居大內, 大小臣工, 莫能接見, 朝夕左右, 不過宦侍之流.)”라는 말이 있다.

95) 熹宗 朱由校는 16세에 제위에 올랐다. 魏忠賢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熹宗을 오락으로 이끌었다. 熹宗은 특히 나무를 깎아 물건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魏忠賢은 중요한 상소는 일부러 그가 나무를 깎고 있을 때 올리게 했다. 놀이에 몰두해있던 상황이라 熹宗은 언제나 魏忠賢이 대신 처리하게 했다.

96) “帝曰, 聞民間殊苦新法, 安石曰, 祁寒暴雨, 民猶怨咨, 此無庸恤, 帝曰, 豈若并祁寒暴雨之怨亦無邪? 安石不悅, 退而屬疾臥, 帝慰勉起之.” 위의 책 10549.

97) “相臣王安石條陳新法, 朕一時誤聽, 遂爾舉行.”,李玉 『眉山秀·負圖』, 976쪽.

98) 黃宗羲는 『明夷待訪錄』에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은 한 성씨의 흥폐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만민의 즐거움과 근심에 관계된 일이다(天下之治亂, 不在一姓之興止, 而在萬民之憂樂)”라고 했고, 呂留良은 『四書講義』에서 “임금과 신하는 義로 합하지만, 뜻이 다르거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君臣以義合, 但志不同, 道不行便可去)”라고 하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李玉의 『眉山秀』는 작가 자신이 처한 시대 상황과 너무 흡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시대를 조명하고 회고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에 못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蘇氏 일가의 굴곡진 삶과 失意의 고비가 닥칠 때마다 脫俗의 사상으로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야했던 蘇軾의 처지는 바로 현 시대를 사는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애통함과 안타까움은 그로 하여금 ‘마음이 찢어지고’, ‘정신을 잃게’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眉山秀』는 이와 같은 작가의 복잡한 감정이 농축되어 만들어진 결정체이다.

#### 4. 결론

李玉의 『眉山秀』는 기존 작품 다섯 편의 일부 내용과 작가가 구상한 내용을 새로이 구성한 작품이다. 이야기의 길래가 많으면 자칫 산만한 전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도록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기존의 내용을 새로운 부분과 조화롭게 구성하여 새로운 한 편의 극작으로 탄생시켰다. 새로이 구상한 부분 또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서 取材하였기에 자칫 식상할 수 있지만, 이는 ‘天崩地裂’의 현실에서 亡國을 경험하여 극중 상황이 亡國 이전 자신들의 처지였음을 잘 아는 관객에게는 너무나 공감에 가는 내용이다. 더구나 삼척동자라도 이름만 대면 이는 蘇軾 일가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랑, 이별, 투쟁, 실의, 초탈 등의 이야기이니, 관객이 느끼는 喜怒哀樂의 감정 또한 상당히 절실하였을 것이다. 『眉山秀』의 取材는 이런 효과를 예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작가가 기탁하고자 한 ‘은미한 뜻’, 즉 과거를 회고하여 현시대를 재조명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역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錢謙益은李玉이 『眉山秀』를 분개의 마음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으로만 접하는 소설이나 역사와 달리 血肉을 가진 인물의

---

였다.

입으로 말하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더욱 생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戲曲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李玉의『眉山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素材로 이루어진 작품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 작품이다.

#### 〈參考文獻〉

- 李玉, 「眉山秀」, 『李玉戲曲集』, 上海古籍出版社, 2004.
- 李玉, 「清忠譜」, 『李玉戲曲集』, 上海古籍出版社, 2004.
- 錢謙益, 「眉山秀題詞」, 『歷代曲話彙編·清代編』, 黃山書社, 2008.
- 吳梅, 『中國戲曲概論』, 上海古籍出版社, 2000.
- 顏長珂·周傳家, 『李玉評傳』, 中國戲劇出版社, 1985.
- 馮夢龍, 『喻世明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 馮夢龍, 『警世通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 馮夢龍, 『醒世恒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 黃文暘, 『曲海總目提要』, 天津市古籍書店, 1992.
- 馮夢龍, 「情史」, 『馮夢龍全集』, 上海古籍出版社, 1993.
- 莊一拂, 『古典戲曲存目彙考』, 上海古籍出版社, 1982.
- 夏燮, 『明通鑒』, 上海古籍出版社, 1994.
- 洪邁, 『夷堅志』, 中華書局, 1981.
-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과평전』, 돌베개, 2013.
- 吳偉業, 『吳梅村全集』, 上海古籍出版社, 1990.
- 蘇軾, 『蘇東坡全集』, 北京, 中國書店, 1991.
- 傅樂成 지음, 신승하 역, 『中國通史』, 宇鐘社, 1989.
- 黃宗羲 지음, 최병철 역, 『明夷待訪錄』, 홍익출판사, 1999.
- 苗棟, 『魏忠賢專權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胡梓穎, 「李玉改編劇研究-兼論文人傳奇與市民文學之融和」, 香港科技大學·人文學部 碩士論文, 2006.
- 劉春玉, 「蘇軾題材戲曲作品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 李文勝, 「清初興亡悲劇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 李洪蕾, 「清初易代省思劇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王廷輝,「從李玉的戲曲創作看他的思想」,西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Significance of Li Yu's 『Mei Shan Xiu』

Youn, Hyeon-Sook

Li Yu(李玉)'s 『Mei Shan Xiu(眉山秀)』 is a classic play based on the five novels 『Su Xiao Mei San Nan Xin Lang(苏小妹三难新郎)』, 『Yi Chang Zhuan(义倡传)』, 『Wang An Shi San Nan Su Xue Shi(王安石三难苏学士)』, 『Ao Xiang Gong Yin Hen Ban Shan Tang(拗相公饮恨半山堂)』, 『Wu Jie Chan Shi Si Hong Lian Ji(五戒禅师私红莲记)』 and some historical facts. Some people appreciate this play very much, but some people think it has no literary value. The major reason this work received bad evaluation is that it had adopted existing contents of the five novels. Therefore, it is evaluated to have poor contents. But I don't think it is an objective evaluation. So, I attempt to do objective analysis on the composi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lay.

According to most analyses, 『Mei Shan Xiu』 is known to be based on the five novels. However, it is only one-third of whole work. The rest is created by Li Yu. Moreover, even though the rest part of the work is based on historical facts, Li Yu reconstructed it according to his own historical view. Through this process, it was reborn as a new work. According to 『Mei Shan Xiu Ti Ci(眉山秀题词)』, 『Mei Shan Xiu』 received fervent response from the audience, which proves its quality.

『Mei Shan Xiu』 depicted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ng(宋) Dynasty. Actually, it was very similar to the age in which he lived. The characters in the work are not men of the past, and the situation in the work is never the same one as the past. Therefore, Li Yu attempted to throughly depict the past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is proves that 『Mei Shan Xiu』 has high ideological value.

Key Words: Li Yu, 『Mei Shan Xiu』, 『Su Xiao Mei San Nan Xin Lang』, 『Yi Chang Zhuan』, 『Wang An Shi San Nan Su Xue Shi』, 『Ao Xiang Gong Yin Hen Ban Shan Tang』, 『Wu Jie Chan Shi Si Hong Lian Ji』

이 논문은 2016년 10월 6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